



## 오 록 도 행복 칼럼

얼 리드 교수  
(경성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캐나다 사람인 나는 한국에 첫발을 디딘 지 20년이 훌쩍 넘었고, 거의 대부분 부산에서만 살고 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부산에서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지 묻곤 한다. 그 이유를 단지 한 가지로 단정지을 수 없다. 그 중 몇 가지를 들자면, 나는 부산의 온화한 기후와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특히 겨울은 무척추하지만 알고 보면 마음은 따뜻한 사람들이 너무 좋다.

그렇다고 부산, 또는 한국이 완벽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 어떤 곳도 완벽할 수는 없다. 여유있고 아름다운 휴양지도 막상 정착하여 살아보면 휴가 때 느낀 것과는 아주 다르다고 하지 않는가. 일단, 부산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 외국인의 한국인 되기, 첫단추는 한국어 배우기

있고 그로 인한 여러 외국인 모임들이 많은 것이, 외국인으로서 부산에서 사는 데에 적잖은 도움이 된다. 고향이 그림고 고향 음식이 그리울 때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나 이런 모임들은 부산이 더 글로벌한 도시가 되는 데에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들의 이면에는 약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 나라에 사는 외국인들 중 자국민들끼리 어울리고 자국민만 쓰며 생활하는 소위 ‘외국인 거품(ex-pat bubble)’에 빠지거나, 한국의 문화와 외국 문화의 다른 점에만 집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거품’ 속에서 살게 되면, 자국과 다른 이질적인 것들에 화제가 지나치게 치우치기 마련이므로, 실감감을 계속 가지면서

살기 쉽다. 게다가,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로 부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므로 한국 또는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된 이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아주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진정한 한국을 잘 모를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들의 정보에만 의지하지 않고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한 첫 단계는, 한국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 첫 단계를 밟으려면, 외국인 친구들과만 어울리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주로 함께한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전해지는 것을 알기에,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한국인 친구들이란, 나와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해야 하는 한국인 직장동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여가시간을 기꺼이 보내려는 한국인들을 의미한다.

나는 한국인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특히 경제나 정치 뉴스 등 내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관련 있을 수도 있는 여러 뉴스들에 대한 유익한 내막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한 대화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한국인들도, 심지어 어떤 때는 훨씬 더 많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꼭 좋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유가 다 있다는 것도 종종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 친구들이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부산과 부산의 역사, 그리고 그 고유의 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과정이다. 가끔 문화관광(culture tour)을 갈 기회

가 생기는데, 평범해 보이는 장소나 건축물의 의미심장함에 감탄하곤 한다. 훌쩍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조그만 정자가 조선시대 저명한 학자가 시를 쓴 마지막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것, 언덕 위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는 고려시대 화장터 자리에 지어졌으며 동래에 있는 산 언덕의 무덤들이 가야 왕족들의 무덤이라는 것 등을 알게 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다.

나는 부산에 오래 살고 있는 외국인임에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여러 다양한 외국인 단체들이 부산에 많은 이점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부산에서 살면서 접한 여러 많은 일들에 감사하고 있지만, 특히 부산과 한국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도와준 한국인 친구들에게 더욱 감사한다.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결과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받아드릴 수 있다. 비록, 내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도 말이다.

## 빛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 백보름 변호사의 생활법률

#### 〈1〉 갑자기 상속인이 되었을 때

Q.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생전에 남편에게 빛이 있었는데 이를 값이라고 해서 상속장이 와요.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생계도 막막한데 저와 자녀들은 남편의 빛을 모두 값이야 하나요?

A.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으므로 사망자가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예금, 대출, 보험 등), 연금, 세금, 자동차나 토지 소유 내역 등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고 판단되면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재

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상속순위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남편이 남긴 재산과 채무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회 결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면 의뢰인과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남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재산과 빛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남편이 남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구청 법률상담터

\* 법률홍덕터는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주치의 제도이다.

### ■ 독자 칼럼

## 생활이 익어가는 김장김치

얼마 전 겨우내 식탁에 오를 김장을 했다. 수십 년간 아내 혼자 해온 김장이지만 이제 나 이도 들고 혼자 하기에 힘들다 하여 옆에서 보조로 도왔다. 서둘러 잔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나름대로 보람 있었다. 지금까지 그냥 아내가 홀로 한 김치를 먹기만 했지 김장이 그리 복잡하고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막상 참여해 보니 옛날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다.

배추를 구입해 절이기부터 각종 양념 준비하고 김장을 치면 뒤 내장과 속에 들어갈 때까지 과정이 굉장히 많았고 복잡했던 것이다. 배추도 해남에서 해풍 쬔 것이 좋으며 오래 전에 주문해 김장시기에 맞춰 배달됐다. 다른 분야에는 별 도움이 안됐지만 고추 땀과 마늘 까며 김장을 치는데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냥 배추 속을 넣고 치대기

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던 김장이 이번 체험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다. 그간 김장에 짓들인 아내의 노고가 대단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계기였다. 반나절 가량 치대어 드디어 김장이 끝나고 찜밥과 미리 준비해 두었던 돼지고기 수육에 온 정성을 다 들어 만든 김장김치에 싸 먹었더니 꽃맛 그대로였다.

단순히 배추 속에 여러 가지 양념만 넣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김장에 대해 과연 김치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갖는 종합비타민이요 한국인 최고의 반찬임을 직접 알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김장 담그기에는 꼭 참여해 아내를 돕는 차원에서 우리 가족 식탁 최고의 찬거리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우정렬(대연동)

## 2020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안내

○운영기간 : 연중(강좌별 접수처 문의) ○운영장소 : 동 주민자치회 17개소

동명(접수)	강좌명	요일	시간
대연1동 607-6602	방송대수교실	화,목	18:30~19:30
	통기타교실	토	14:00~16:00
	문인화교실	월	14:00~16:00
	캘리그래피교실	화	10:00~12:00
	사예교실	목	09:00~12:00
	양재패션교실	금	10:00~12:00
	컴퓨터교실	화,목	13:30~15:30
	요가교실(A)	화,목	10:00~11:00
	요가교실(B)	화,목	11:00~12:00
	노래교실	화,목	16:00~17:00
대연3동 607-6642	풍물교실	화	10:00~12:00
	패션웨어아트	수	10:00~12:00
	단오가(A)	월,목	09:30~10:30
	단오가(B)	월,목	10:30~11:30
	단오가(삼인그라운드)	월,수	20:00~21:00
	라온댄스(초급)	화,금	09:30~10:30
	라온댄스(중급)	화,금	10:30~11:30
	생활영어교실(초급)	화	10:00~12:00
	생활영어교실(중급)	화	13:00~15:00
	생활영어교실(고급)	월	10:00~12:00
대연4동 607-6676	생화양조교실(초급)	수	10:00~12:00
	생화양조교실(중급)	화	10:00~12:00
	생화양조교실(고급)	월	10:00~12:00
	원아양조교실(초급)	수	10:00~12:00
	원아양조교실(중급)	목	10:00~12:00
	사예교실	화	13:00~15:00
	문인화교실	목	14:00~16:00
	사예화교실	월	10:00~12:00
	문인화교실	화	13:00~15:00
	라온댄스교실	월	10:00~12:00
대연5동 607-6686	풍물교실	월,수	14:00~15:00
	요가교실(중급)	화,목	10:00~11:00
	요가교실(초급)	화,목	11:00~12:00
	불교교실	화	10:00~12:00
	스포츠댄스	월,수	10:00~11:00
	아르선 건강체조(초급)	월,수	12:30~14:30
	아르선 건강체조(중급)	월,수	15:00~16:00
	작곡인 요가교실	화,목	18:30~19:30
	풍물교실	수	10:00~12:00
	문인화교실	목	10:00~12:00
대연6동 607-6705	한글교실	화,금	10:00~11:00
	생활과학교실	목	15:00~16:30
	클래식 라온댄스 동아리	월,수,화	11:00~12:00 10:30~11:30
	요가A	월,수	09:00~10:00
	요가B	월,수	10:00~11:00
	발라드댄스(초급)	월,수	12:00~13:00
	발라드댄스(중급)	월,수	11:00~12:00
	한국무용(Ⅰ)	목	13:30~14:30
	한국무용(Ⅱ)	목	14:30~15:30
	한국무용(Ⅲ)	목	15:30~16:30
대연7동 607-6722	한자강좌	화,수	13:00~14:30
	노래교실	목	10:00~12:00
	일본어교실	금	10:00~12:00
	사예교실	금	10:00~12:00
	하모니카(초급)	화	15:00~16:00
	하모니카(중급)	화	16:00~17:00
	라온댄스	월	14:00~16:00
	민요강구교실	월	10:00~12:00
	캘리그래피교실	화,목	10:00~11:00
	시니어라온댄스교실	수	10:00~12:00
유호1동 607-6722	생활영어교실	수	16:00~18:00
	댄스교실	화,목	12:10~13:10
	사예교실	화	14:00~16:00
	아르선 생활과학교실	목	16:00~17:30
	동화구연교실	목	10:00~12:00
	사극구연교실	월,수	10:00~12:00
	풍물교실	월	15:00~17:00
	라온댄스교실	화,목	10:00~11:00
	노래교실	금	13:00~15:00
	컴퓨터교실	월,수	14:00~16:00

동명(접수)	강좌명	요일	시간
유호3동 607-6761	신나는 건강댄스	월,수	13:00~14:00
	요가1	월,수	10:30~11:30
	요가2	화,목	11:00~12:00
	캘리그래피	목	10:00~12:00
	캘린! 오카리나	금	10:00~12:00
	가게	수	13:00~16:00
	주니어댄스교실	월,수	08:00~20:00
	주니어댄스교실	목	16:00~18:00
	가게교실	월	12:00~14:00
	캘리그래피교실	월	10:00~12:00
유호4동 607-6785	사예교실	화,목	10:00~12:00
	풍물교실	화,수	19:00~21:00
	풍물교실	화,수	10:00~12:00
	생활영어교실	금	10:00~12:00
	풍물교실	월,금	10:00~12:00
	노래교실	화,목	14:00~16:00
	요가교실1	화,목	10:00~11:00
	요가교실2	화,목	10:00~11:00
	생활영어교실	수	10:00~12:00
	사예교실	월,수	10:00~11:30
유당동 607-6802	단학교실(초급)	월,수	09:30~10:30
	단학교실(중급)	월,금	10:30~11:30
	사물놀이	월,수	14:00~15:30 10:30~12:00
	요가교실	화,목	09:00~10:30
	노래교실	화,목	10:30~12:00
	요가교실	화,수	10:00~12:00
	스포츠댄스교실	화,수	10:00~12:00
	하모니카교실	목	10:00~12:00
	초급요가교실	금	10:00~12:00
	웃음교실	화	10:30~11:30
김천1동 607-6826	주니어체력대련장	평일,토일 공휴일	06:00~20:00 09:00~17:00
	노래교실	월	10:00~12:00
	주니어댄스교실	화	14:00~16:00
	스포츠댄스교실	화,금	12:50~13:50 10:00~11:00
	노래교실	목	13:30~15:30
	요가교실	수,금	12:30~13:30
	문인화교실	수	10:00~12:00
	간호에어모빅	화,목	09:00~10:30
	간호요가교실	화,목	10:30~12:00
	간호노래교실	월	13:30~15:30
김천2동 607-6841	소라놀이 나만교실	수	14:00~16:00
	엘라프댄스교실	수,목	12:30~13:30
	평일,토일 공휴일	평일,토일 공휴일	06:00~21:00 09:00~17:00
	주니어체력대련장	평일,토일 공휴일	06:00~21:00 09:00~17:00
	문인화교실	월,수	14:00~16:00
	단학교실	수,목	09:00~10:00
	컴퓨터교실(초급반)	금	10:00~11:30
	컴퓨터교실(자녀중반)	금	11:30~13:00
	웃음교실	목	10:30~13:30
	즐거움 웃음교실	월,수	14:00~16:00
문현1동 607-6902	노래교실	월,목	13:30~15:30
	국악교실	화	10:30~12:30
	요가교실	수,금	09:00~11:00
	문인화교실	월	13:00~15:00
	사예교실	화	14:00~17:00
	일본어교실	월,수	10:00~12:00
	요가교실(초급)	화,금	10:30~12:00
	산악인물놀이교실	토	10:00~12:00
	산악노래교실	화	13:30~15:30
	산악노래교실	화,금	09:00~11:00
문현2동 607-6925	라온댄스교실(초급)	월,목	14:00~15:30
	풍물교실	목	10:00~12:00
	황련요가	월,목	10:00~11:00
	생활요가	월,목	11:00~12:00
	문사자성	목	10:00~12:00
	인타트유희용	목	12:00~14:00
	라온댄스	화,목	15:30~16:30
	청신년 나만교실	화	17:00~19:00
	생활영어회화	월	16:30~18:30
	생물영어회화	월	16:30~18:30

## 내 손으로 만드는 ‘인생 연극’

김화진의  
부산사람 된  
서울내기



월요일 밤, 지하1층 연습실에 십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 부산 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의 ‘마음으로부터 연극!’ 시간이 다.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목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수줍게 인사를 나눈다.

연극교실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 ‘살면서 한번쯤은 연기를 해보고 싶다. 평소엔 하지 못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 나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싶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싶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면 부산문화회관의 연극교실로 오세요!’라고. 이 간단한 소개글보다 훨씬 다양한,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연극교실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수업을 시작한다. 스트레칭을 마치고, 연습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걸어본다. 혼자서, 또 둘이서. 자연스럽게 둥근 대형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진다. 그렇게 걸으면 서 공간과 익숙해져간다.

오른손 손바닥을 펴고, 그 위

에 사과가 놓여있다는 상상을 한다. 사과의 크기, 질감, 무게, 색깔, 온도…. 내가 상상한 사과에 맞게 손가락이 적당히 오므라든다. 크기가 큰 사과라면 이 정도, 작은 사과라면 이 정도, 왼손 손가락으로 사과의 꼭지를 잡고 들어올린다. 묵직하다. 왼손 손가락을 폈다. 아차, 오른손으로 사과를 받치 못해 떨어뜨렸다.

두 줄로 마주보고 앉아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한사람씩 걸어본다. 열 걸음 남짓 짧은 거리인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긴장해버렸다. 또박또박 걸기는커녕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허둥지둥 걸음을 마쳤다. 걸음 걷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는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면, 어린 아이가 되는 것 같다. 연기를 배우기 위해 어린아이로 돌아가 숨쉬기, 걷기부터 시작한다. 나의 지난 삶과 경험이 때론 거름이, 때론 걸림돌이 된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손바닥 위에 상상의 굴을 올려놓아 본다. 10주의 과정 동안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수업이 있는 월요일이 기다려진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산따라가 물 따라

# 산행을 떠나요

〈2020. 2.〉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정소	연락처
대연동	약천산악회	2.19(수)	전남 장성호 둘레길	010-4655-4370
	백운산악회	2.12(수)	경남 거창 우두산	010-5621-4007
	대송산악회	2.9(일)	경남 고성 구절산	010-2559-2641
	하나로산악회	2.5(수)	속리산 범주사	010-3837-6206
유호동	청산산악회	2.2(일)	통영 천안산 사신재	010-8008-2087
	여남산악회	2.9(일)	울산 신불산	010-4553-6615
	청심산악회	2.23(일)	청도 남산	010-2736-7553
	21세기산악회	2.9(일)	경남 고성 연화산	010-7563-1943
유당동	용마산악회	2.9(일)	경남 무이산	010-2692-1170
김천동	오솔길산악회	2.16	밀양 천태산(사신재)	010-8287-1192
문현동	문현2동산악회	2.9(일)	여수 금오산 향일암	010-2902-8322
	문사산악회	2.9(일)	경남 함천 해인사	010-8466-8662
	산누리산악회	2.2(일)	경북 성주호 둘레길	010-4035-3432

※ 산악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산행 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